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4년도 표어 ◎

보혜사 성령이여 깨끗케 하소서(시51:10)

◎ 행동지침 ◎

1. 바른생활
2. 바른교회
3. 바른국가

† 발행인 : 이종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 seoulchurch.or.kr

영혼의 양식 - 소신지서 강해

새날이 동튼다

(스바냐 3장 1 ~ 20절)



이종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예언서의 주 메시지는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이 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항상 여호와의 날이 가까왔으므로 회개하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면서 동시에 구원의 날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히 저주의 자리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우고”(암 9:11). 그 날은 여호와가 오시는 날, 심판의 날이지만 또한 그 날은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심판날은 성도들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1. 새 날이 임할 것이다

“그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9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은 새 날이 임하는 날입니다. 그 날에는 모든 백성들이 친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설 터인데 그 날에는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과 시온에 다시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 날에는 자기 자랑과 속이는 것이 모두 없어지고 24장로들과 함께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시 24:3-4). 새 날은 진리와 의로 묘사된 날로서 참되고 의로운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참되고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으며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중생을 통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13절).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향해 간 듯 하지만 그 가운데는 남은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깨끗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청결케 하시어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적 자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입술이 깨끗한 자입니다(9절). 입술은 곧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친양하는 사람은 입술이 깨끗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바깥에게 절하고 몰렉에게 맹세한 이들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친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거절하십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열납 되려면 회개하고 온전히 깨끗한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겸손한 사람입니다(11, 12절). 교만의 뿔을 꺾고 겸손한 사람인지 스스로 물으며 하나님 앞에 나을 때 그가 비로소 하나님께 남은 자로서 부름을 받게 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엡 2:8).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매를 맞고 넘어져 다른 사람이 이 보기에 참으로 비참할 정도로 곤고한 지경에 떨어져도 그 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간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그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님의 선물이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13절). 거짓된 혀가 없다는 말은 도덕적 완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거룩을 향하여 점진적으로 진보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것이요”(요일 2:3).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 하는 사람이며 그 속에 진리가 있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알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요 14:15).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순종과 사랑은 서로 펼 수 없는 관계입니다.

2. 새 노래를 부르라

“시온의 딸아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딸아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14절).

하나님이 주시는 새 날이 오면 기쁨으로 새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새 노래는 하나님께 나에게 구원을 행하신 일을 감사함으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노래를 불러야 하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형벌을 제거하였기 때문입니다(15절). 세상에 이 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의 백성이라면 주님께서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지키실 터이므로 우리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것이 새노래를 부르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3.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20절).

이것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씀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무게 있는 말씀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바벨론 침략으로 인하여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16절).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시므로 우리는 두려워 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즐거이 부르십니다(17절).

하나님의 백성, 곧 남은 자는 교회를 지극히 사랑합니다. 교회를 염려하는 것은 택한 백성들의 특징입니다(18절). 하나님은 성도의 고난을 자기의 짐으로 여기는 자에게 구원을 약속하십니다(19절). 이 약속이 없었다면 새 날은 절망의 날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체 여러분,

새 날을 기다리며 새 날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2004 홍해작전 개전 1주일 앞으로

6월6일(주) 찬양예배 시 흥해작전 발대식 가져

2004년 홍해작전 개전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동안 홍해작전 준비위원회(위원장 최종시 장로)는 합심기도로 모임을 이끌며 개전을 위한 준비를 하여왔다. 특히 홍해작전은 특별 새벽기도 작전이므로 모든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며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

기간 중 새벽기도회는 평소보다 30분 더 길어진 오전 5시에 시작되며 이종윤 목사가 강사로 서게 된다. 모든 가정마다 인간의 힘으로 건너기 힘든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특히나 국가의 어려운 경제 현실과 정치권의 불안은 더욱 더 깊은 홍해로 다가오고 있다. 이 홍해는 기도 밖에는 건널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 모든 성도가 새벽의 어둠을 깨치고 교회에 모여 우리를 깨끗케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만나 홍해를 가르고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바로 세우는 승리를 누리시기 바란다.

한편 이번 홍해작전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봉사할 부서별 참모와 실행위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부서	참모	위원
기획참모부	이복규 장로	이제원 우지원 최양진 이학주 하인선 피택집사, 피택건사
행정참모부	하영수 장로	이상호 서춘식 김인수 김종근 최치순 최홍열
예배참모부	신용식 장로	오형철 오광환 류중관 조철기
찬양참모부	임상현 장로	최형열 백수남 김성준 조동완 손병석 오승민 이영자 황노진 안분선 이영희 허숙 이태상 박우옥 이영희
동원참모부	김세재 장로	장양일 김금준 임옥균 이태원 윤성남 교구간사 전원, 교회학교 부감 전원, 남녀전도회 임원
홍보참모부	전기섭 장로	김규태 정동호 송인권 이영철 김영주
봉사참모부	이관규 장로	이계홍 이승우 오유식 윤운식 황정욱 최용걸 한길동
안내참모부	조정식 장로	이동만 이남성 김현영 양인수 김찬웅

전도학교 9기생 수료와 10기생 모집

오늘 찬양예배 시 수료식, 6월 6일(주) 10기 교육시작

오늘 찬양예배 시에 전도학교 9기의 수료식을 갖는다.
성인 20명과 대학부 5명 등 25명이 수료한다. 명단은 다음과 같다.

한편, 다음 주일(6일)에는 제10기 전도학교가 교육이 시작되며 성인과 대청부 합하여 40명을 모집한다. 전도에 관심가진 성도는 누구나 가능하며, 주일에 교육받기 어려운 분들은 토요일 저녁 7시에 전도학교 과정에 참석

하면 된다. 관심 있는 성도들은 오늘까지 사무국에 신청 바란다.

전도학교 수료자

강낙훈 강혜주 고완순 김경희 김명화 김민욱 김순덕 김영옥
김영주 김영호 김 옥 김은순 김종윤 김진희 남경수 박성금
백경원 송한솔 오광환 이계홍 이양철 이윤희 이현주 임승자
한충현

인근지역 주민 초청 경로잔치 열어

6월 3일(목) 교회 601호에서

마리아여전도회(회장 주경자권사)에서는 다음 주 목요일 교회인근에 위치한 청실, 삼성, 대치현대아파트 그리고 대치3동에 거주하는 어른들 100분을 교회로 초대하여 경로잔치를 열기로 하였다. 11시 601호에서 이규정 목사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찬양과 점심대접을 하며 우리교회 내부를 둘러보는 것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서 교회에 대해 친근감과 좋은 인식을 심어 주어 신앙을 접하는 시발점이 되게 하고 본인들 뿐 아니

고등부 찬양대 새로운 지휘자 임명

고등부 창향대에 김문영 선생이 새로운 지휘자로 임명되었다. 김문영 선생은 서울대 음악대학 성악과를 졸업하고 미국 맨하탄 음대에서 성악 석사와 성악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편 고등부는 지난 5월 22일(토) 묘동교회에서 열린
강남노회중고등부연합회 주최 찬양대회에서 중창부문
우상을 수상했다.

12차 KIMCHI세미나 국가별기도제목

卷之三

1. 캄보디아 국민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2. 주님의 축복으로 조국이 평안하고 주님의 손안에서 조국이 발전하고 서로 사랑하도록
 3. 정부가 복음에 대해 열린 정책을 펴고 주님이 그들의 더러워진 마음을 신실하게 바꿔도록
 4. 주의 자녀들이 그들의 성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5. 캄보디아와 국민들에게 성령운동이 일어나도록
 6. 캄보디아의 모든 목사들과 주의 종들이 주의 강한 역사하심 안에서 진실하며 주의 종을 잘 섬길 수 있도록
 7. 캄보디아 목사들이 더 깊은 신학 공부를 해서 주님의 뜻에 맞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8.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문이 계속 열리도록

<라오스>

1. 새신자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2.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3. 교역자들과 기족들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도록
 4. 새신자들이 매일 주님 앞에 나오도록
 5. 11개의 주를 위하여

10

1. 미안마의 모든 혐체자매들이 신실한 기독교인이 되도록
 2. 조국의 정치상황이 안정적이도록
 - 주님이 조국을 이끌어 주시어 기독교 국가로 바꿔도록
 - 자유롭고 공명정대하도록
 3. 성경학교가 - 교회 안에서 일관성 있게 진행되도록
 - 불교도들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4. 전임 교역자를 위하여 - 성경학교 학생과 교사를 위하여
 - 선교사를 위하여
 - 미안마의 모든 기독교인이 부흥하도록
 5. 신앙 안에서 하나님 되도록

八

1. 태국의 선교 2010계획
2010년 까지
 - 모든 주에 교회가 세워지고
 - 모든 구에 기독교인 단체가 세워지고
 - 모든 마을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2. 태국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하나 되도록(주를 위하여 서로 교제 할 수 있도록)
 3. 조국이 평안하도록 (모반이나 전쟁, 싸움이 없도록)
 4. 전국에 복음전파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5. 전국에 교회의 성장이 일어나도록
 6. 성장을 위한 준비가 다 된 들판에 교회와 복음의 씨를 뿌릴 더 많은 일꾼을 주시도록

卷之三

1. 베트남 고산 지대와 밀림 깊숙이 선교의 문이 열려 베트남 국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2. 많은 어린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거리에서 방황하는 아이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새로운 여호수아 세대들이 베트남을 부흥시킬 수 있도록
 3. 모든 베트남 국민들이 최소한 한번 이상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더 많은 자유를 위하여
 4. 단 하나밖에 없는 신학교를 위해 목사, 교회 일꾼, 선교사, 독지가, 사회사업가가 많아지도록
 5. 세계와 베트남에 성령의 폭발이 일어나도록

제8대 집사로 46명, 제7대 권사로 40명 피택되었다.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 피택집사 명단



1. 최광성 2. 강석우 3. 양춘경 4. 이찬호 5. 안인호 6. 김 훈 7. 이경구 8. 김복승 9. 김은태 10. 유을상



11. 조동완 12. 김종윤 13. 오승민 14. 유 신 15. 최규조 16. 김광통 17. 이재윤 18. 김재근 19. 우상태 20. 권장환



21. 이중형 22. 손태기 23. 장두현 24. 이영조 25. 정동학 26. 유근종 27. 김성준 28. 한종우 29. 정인주 30. 서경학



31. 박정수 32. 이강인 33. 김시환 34. 조성업 35. 전광영 36. 이동권 37. 흥창배 38. 이광열 39. 흥일성 40. 권장철



지난주일 찬양예배 후 가진 공동의회에서 투표결과, 제8대 집사로 46명, 제7대 권사로 40명이 피택되었다.

이들은 앞으로 매주 토요일 새벽 임직을 위한 교육을 받게 된다. 피택자들이 믿음 안에서 신실하였던 스데반 집사와 같이 강건 하도록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하다.

· 피택권사 명단



1. 김명화 2. 이영옥 3. 임충자 4. 남순덕 5. 한명순 6. 박경자 7. 김영식 8. 정정희 9. 이순영 10. 허현숙



11. 흥광숙 12. 김양숙 13. 정효자 14. 심상렬 15. 김경희 16. 임분도 17. 김예영 18. 정유선 19. 임귀순 20. 엄금순



21. 이봉선 22. 오영숙 23. 서순영 24. 진선자 25. 배병이 26. 김춘제 27. 신기숙 28. 최미아 29. 이미연 30. 이경희



31. 김정순 32. 최향종 33. 이영희 34. 유순섭 35. 정영옥 36. 최숙자 37. 배은희 38. 이영숙 39. 박춘자 40. 이윤희



만민에게 전도 - KIMCHI 세미나 현장스케치

김치 세미나! 감사합니다!!



“공산 체제에서 어떻게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지 항상 의문이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한국교회의 성장 모델을 보며 새로운 해법을 꼭 찾아 돌아가고 싶습니다...”

<학문적 지고성>과 <영적성숙>을 위한 제 12차 김치세미나가 지난 24일부터 열흘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우리 교회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김치세미나에 올해는 베트남과, 라오스, 캄보디아, 타일랜드, 미얀마 등 인도차이나 반도 5개 나라에서 30명의 교계 지도자들이 초청됐다. 특히 공산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들은 무엇보다도 자국의 영적 부흥이 커다란 관심사인만큼 세미나에 임하는 자세가 각별했다.

입국 당일 공항에서부터 장로들을 비롯한 여러 성도들의 따뜻한 환대 속에 감사의 개회예배를 드렸던 이들은 이튿날 아침부터 진행된 새벽기도회에 참석하며 한국교회의 모습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매일 새벽에, 그것도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기도 모임을 가질 수가 있는지... 대단히 놀립니다.” 참가자들이 가장 먼저 놀라워하는 것은 첫날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진행되는 새벽기도회였다.

의 성경적 원리>와 <교회 성장원리의 실제적 적용>강의가 첫날과 마지막날 진행되는 것을 비롯해 조종남 명지대 교수의 <한국교회의 기도생활>, 또 장신대 이광순 박사의 <전도전략의 실제>, 할렐루야교회 김상복 목사의 <교회성장을 위한 다락방(소그룹)운동>, 기독교학교 연맹 이사장인 이원설 박사의 <한국교회성장의 사회문화적 배경>, 칼빈신학대학 김의환 박사의 <한국교회의 역사>, 국제신학대학 이승구 박사의 <종교다원주의의 비판적 연구>, 선교사인 A.W.Kinsler의 <평신도 풀뿌리 전도> 등 한국의 기독교 석학들의 수준 높은 강의가 이어지면서 참가자들의 관심과 만족도는 높아만 갔다.

오후에는 영락교회 등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와 장로교 신학대학 등 신학교, 연세대학교, CBS 방송국, 대한성서공회, 기도원 등을 차례로 둘러보고 있다. 비교적 열악한 자국의 환경에서 어렵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들로서는 교회와 신학교, 기독교 대학들의 발전한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고 설명을 들으면서 연신 감탄사를 토했다. 태국에서 온 앤리프리야 프라윤 목사는

홍해작전을 기다리며

2004 홍해작전 총 진군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종시 장로(홍해작전 참모장)

성경 속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역사의 한가운데에는 언제나 위대한 인물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출14:13)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이 위대한 사건을 전지하시고 무소부재 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역사 할 수 있음을 우리 모두 들은 바요, 본 바요, 전한바입니다.

2004 홍해작전은 ‘보혜사 성령이여 깨끗케 하소서’라는 주제로 출발하여 함께 기도하며 살아 계셔서 역사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 나의 홍해, 가정의 홍해, 교회의 홍해, 나라와 민족의 홍해를 말씀과 기도로 마른땅 같이 건너는 역사를 체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 제12차 김치 신학세미나에 초청된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월남의 교역자 위하여
- 명상에 있는 환자들, 출타자, 실직자, 소외된 자, 자녀들을 위하여
- 홍해작전, 방글라데시 단기선교팀, 농어촌 선교팀을 위하여
- 복음화된 통일 조국을 위하여

난생 처음 이룬 새벽에 잠에서 깨어 기도회를 드리면서 시차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것이 오늘의 한국교회를 이끈 원동력이며 ‘모든 일을 하기 전 기도부터 해야 한다’는 주님의 가르침을 순종하는 것이라는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종윤 목사의 <교회성장

지난 몇일 동안에 신학교 3년과정과 맞먹는 공부를 한것 같았지만 만족했다. 특히 티라 챙목사는 이목사님의 지도력과 종친 모습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하면서 감사했다. 대부분의 참가자들도 가는 곳마다 그곳의 소개지를 챙기거나 일일이 메모를 하는 등 자국에서의 사역에 도움이 되는 것이면 한 가지도 놓치지 않으려 애를 썼다.

저녁 일정 가운데는 금요일 다락방 조직을 견학하기 위해 각 가정을 방문하는 순서가 관심을 끌었다. 개인의 신앙 훈련뿐만 아니라 소그룹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훈련을 가지는 모습을 체험하면서 주일 예배조차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는 자국의 형편에 비교하면서 참가자들은 특별한 감명을 받았다. 이들은 오늘(30일) 예배와 주일학교를 참관하고 유아부와 애비다부, 청년부, 신혼가정부 등을 찾아 인사를 나눈다.

봉사자 중 한 사람은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어렵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인사들이어서 조그만 친절에도 크게 감사해 한다며 서울 교회 곳곳의 모습을 보고 있는 만큼 이들과 만날 때면 모두가 따뜻하게 이들을 맞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참가자들은 오는 수요일 저녁 폐회예배를 끝으로 공식적인 세미나 일정을 마치고 자국 복음화를 위한 깊은 결단의 시간을 가진 뒤 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다.

글: 김민철 사진: 유태서(편집부)



동정

필그림 산악회: 6월 5일 토요일 7시 도락산행 연락—이종창 집사(011-717-9233)

이사: 이민화 권사(11교구) 송파구 신천동 진주@ 6-302 전화: 413-5276
최현덕·김성은 성도(13교구) 은마APT22-1301 전화: 556-0237

주간 식당봉사: 엘리야남선교회(5월30일) 모세남전도회(6월6일)

금주의식사: 이상호집사(김치순 권사) 가정-자녀결혼을 감사하며
김중근집사(최혜순권사) 가정-장례를 은혜중에 마치고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TV	<ul style="list-style-type: none">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위성 CH 162(기독교방송) 매주 수 오전 7시
라디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HLKX 106.9 MHz(국통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인터넷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호산나넷-(http://hosanna.tv) 기독교 TV-(http://www.cts.tv)

■ 예배 및 집회 ■

구 분	시 간
주 일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 요 예 배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 요 기도 회	오후 9시 30분
새 벽 기 도 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약도 ■

